

##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봉언<sup>1)</sup> · 김경식<sup>2)</sup>

###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자아개념, 직무만족, 건강, 대인신뢰 및 주변안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아개념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행복수준은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인에 의해 도출된다기보다 사건이나 환경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는 개인의 경향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일련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사회자본도 청년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무언가 포기하며 살아가는 세대라 자조하는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청년들의 행복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I. 서론

청년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현재 한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하여 ‘3포 세대’라는 말을 자칭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함하여 ‘5포 세대’라 하고, 갈수록 그 목록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을 단지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언가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이에 본 연구는 청년들의 ‘행복’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행복은 말 그대로 주관적 차원의 개념이다. 주관적 차원의 삶의 질은 개인의 삶이 자신의 내면적 기대수준을 충족시킨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 객관적 삶의 지표이기보다 개개인의 평가와 판단을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본다(이기혜 · 김경근, 2013). 특히 Diener(1984)는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자신이 인지하는 주관적 웰빙,

1)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중등교육연구소 연구원

2)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행복감, 만족도 등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행복에 관한 관심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특히 긍정심리학의 등장 이후 행복 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숙, 2008). 또한 ‘행복’이라는 용어도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권세원 외, 2012).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철학적 담론을 담은 문헌연구들이다. 이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갖는 추상적인 성격 때문일 것이다. ‘행복’에 관한 연구는 철학, 신학,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김민경, 2011; 김성동, 2007; 김윤태, 2009; 이기혜, 김경근, 2013; 이용철, 2012; 정세근, 2014), 이미 지적하였듯이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이기혜, 김경근, 2013),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행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최근 OECD 34개 국가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19개 지표의 가중 합계인 ‘행복지수’를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으로 32위에 올라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이내찬, 2012). 전술한 바와 같이 무언가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이 지각하는 삶의 질 역시 상당히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청년들의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행복과 관련한 변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행복감의 배경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보고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행복 간의 관계(Nolen-Hoeksema & Rstuting, 1999; 우문식, 2012), 문화자본과 행복(류승아 외, 2011; 서우석, 2015), 직무만족과 행복(정민정 · 김유진, 2009), 사회자본과 행복(한세희 · 김연희 · 이희선, 2011) 등으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철학적인 담론을 분석하거나 상당히 한정된 대상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적인 데이터인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청년의 ‘행복’과 관련한 변인들을 투입하여 그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들이 지각하는 행복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접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행복에 대한 관점

행복에 대한 논의는 최근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치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Pavot & Diner, 1993; Seligman & Csizentmihalyi, 2000). 이렇다보니 국내외 연구자들은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행복감, 심리적 웰빙 등의 용어와 혼용하고 있다

(Seligman et al., 2005). 일부에서는 각기 서로 다른 의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Helliweel & Putnam, 2004; 한세희 외, 2010).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생활수준 향상에 의해 높아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어, 교육수준, 나이, 성별, 소득 등의 객관적이고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거나(우문식, 2012), 주관성에 보다 관심을 두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하며, 외적 조건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며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장인권, 2010). 이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행복을 주관적 행복과 객관적 행복의 두 가지가 상반된 개념으로 나누어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Frey & Sturzer, 2002).

한편 Diener(1984)는 행복의 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밝히는 접근을 상향 이론과 하향 이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향 이론적 관점에 따라 인간은 환경을 통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며, 행복한 순간들의 총합이 전체 행복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하향적 접근은 객관적인 요소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렇듯 행복을 논의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이란 일시적이고 극적인 사건의 경험이기보다 일상적으로 자주 경험하는 삶이며, 그리고 주변 환경적 요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의 기질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행복과 관련한 변인

행복과 관련한 변인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요소와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정서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행복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우문식, 2012; Gerhard & Woodley, 2015; Wood et al., 1989). 우문식(2012)은 포다이스 행복도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행복도에서는 높지만 행복한 시간은 여성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밝혔다. 연령,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도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Ryff & Heidrich, 1997; 우문식, 2012).

다음으로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의 정서요인도 행복과 연관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 Smith(1961)는 행복한 사람의 개인적 기질로 긍정적인 사고, 정서적 안정, 자아개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Costa와 McCrae(1980)는 행복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행복 경험이 많기보다 행복한 성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Smith(1961)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아울러 건강 요인도 행복과 관련이 깊다고 밝혀지고 있다(Cohen & Pressman, 2006; Dolan et al., 2009; Lyubomirsky et al., 2005; Miret et al., 2014).

한편 문화자본도 행복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Coalter(2001)는 문화예술의 활동 참

여가 개인의 자존감, 사회적 통합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행복한 삶에 문화 활동이 주요한 요인임을 국내의 연구들도 지지하고 있다(서우석, 2015; 이갑숙, 임왕규, 2012; 장명숙, 박경숙, 2012). 일부에서는 문화자본이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간접효과를 지니기도 한다고 말한다(서우석, 2015).

그리고 직무수행 과정이나 결과에서 느끼는 욕구나 기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 혹은 인식인 직무만족과 행복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정민정, 김유진, 2009; Michalos, 1986). 특히 Michalos(1986)는 직업이 있는 사람은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며, 직장생활에 만족할수록 전반적인 주관적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자본과 행복 간의 관계가 최근 주목받기 시작하였다(한세희 외, 2010). 특히 사회자본과 행복지수로 측정된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탐색한 박희봉 외(2005)는 경제 및 사회적 속성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의 연구도 사회자본의 지표가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Gundelach & Kreiner, 2004).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개인의 행복은 여러 요인과 상호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복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일시적인 삶의 경험이 아니라 자주 경험하는 삶이며, 그 경험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함께 자아개념, 문화자본, 직무만족, 사회자본 등의 요인들이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 1. 분석 대상 및 변수 설명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 중 중학교(2004년 당시) 코호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11차년도 학술대회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는 행복여부이며,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 교육수준, 소득을, 개인배경 변수로 자아개념과 건강을, 문화자본 변수로 문화참여와 월소득 대비 문화활동비 지출 비율, 직업관련 변수로 직무만족을, 사회적 자본 변수로 대인신뢰, 주변안전, 국가기구신뢰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처리
종속변수	행복 여부	예=1, 아니오=0
독립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교육수준	고중퇴=3, 고졸=4, 전문대중퇴=5, 전문대졸=6, 4년제중퇴=7, 4년제졸=8, 석사중퇴=9, 석사졸=10, 박사중퇴=11, 박사졸=12
	소득	log(월소득)
	자아개념	문항 합산
	건강	매우허약=1, 허약=2, 보통=3, 건강=4, 매우건강=5
	문화비비율	문화활동비 한달평균/월소득
	문화참여	뮤지컬, 클래식공연, 전통공연, 전시회, 연극, 대중콘서트, 영화, 스포츠 각 1년 간 관람 1회 이상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 0으로 하여 합산(최대=8, 최소=0)
	직무만족	업무, 환경, 시간, 관계, 임금, 발전, 복지, 안정성, 전반적 만족 문항 합산
	대인신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하는가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0에서 매우 그렇다 4점
	주변안전	거주하는 주변 환경은 안전한가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0에서 매우 그렇다 4점
국가기구신뢰	군대, 경찰, 정부, 의회, 학교에 대한 신뢰정도를 합산	

## IV. 분석 결과 및 해석

###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구분	내용
성별	남=1,307명(52.2%), 여=1,198명(47.8%), 전체=2,505명
월평균 소득(배우자 포함)	180만원
현재학력	6.3(전문대졸 이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교육수준	자아개념	건강	문화비 비율	문화참여	직무만족	대인신뢰	주변안전	국가기구 신뢰
교육수준	1								
자아개념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148 .000	1							
건강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026 .292	.273 .000	1						
문화비 비율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028 .306	-.009 .709	-.026 .272	1					
문화참여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293 .000	.123 .000	-.031 .116	.243 .000	1				
직무만족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069 .017	.372 .000	.298 .000	-.055 .048	.061 .022	1			
대인신뢰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119 .000	.190 .000	.156 .000	.040 .092	.112 .000	.183 .000	1		
주변안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050 .044	.175 .000	.190 .000	.036 .124	.031 .118	.171 .000	.177 .000	1	
국가기구 신뢰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056 .024	.156 .000	.183 .000	.007 .774	.040 .046	.194 .000	.314 .000	.151 .000	1
평균	6.3423	3.6590	3.5284	3.7445	2.0267	3.3775	2.5808	3.0629	2.1766
N	1627	2501	2502	1819	2505	1404	2505	2497	2505

## 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행복여부를 종속변수로 두어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다.

먼저 모형1은 성별, 교육수준 및 월소득을 투입한 모형으로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 카이제곱이 5.216(p=.437)로 유의하지 않아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성별, 교육수준, 소득만 투입한 모형에서는 어떤 변수도 행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개인 요인인 자아개념과 건강을 추가 투입한 모형2 분석 결과,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x<sup>2</sup>=5.216, p=.734), 25.2%의 설명량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Nagelkerke R<sup>2</sup> = .252). 모형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관찰되었는데, 성별(B=-.486, p=.008), 자아개념(B=1.305, p=.000)과 건강(.881, p=.000)이었다. 성별의 경우 여자일수록 행복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개념은 1단위 상승하면 승산비가 3.687배(exp(B)=3.687)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exp(B)=2.414).

한편, 문화자본 변수인 월평균 소득대비 월평균 문화활동비 비율과 문화참여를 투입한 모형 3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Hosmer & Lemeshow x<sup>2</sup>=14.877, p=.062). 그 결과 문화자본 변수는 청년들의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4> 청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항로지스틱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B	S.E.	p	Exp(B)	B	S.E.	p	Exp(B)
상수	.378	.674	.574	1.460	-5.859	.903	.000	.003
성별	-.040	.159	.799	.960	-.486	.182	.008	.615
교육수준	.078	.050	.121	1.081	.000	.056	.994	1.000
소득	.106	.114	.352	1.112	-.016	.124	.899	.984
개인 자아개념					1.305	.155	.000	3.687
건강					.881	.118	.000	2.414
문화 문화비비율								
문화참여								
직무 직무만족								
사회자본 대인신뢰								
주변안전								
국가기구신뢰								
-2 Log 우도	1078.874				893.892			
Nagelkerke R <sup>2</sup>	.005				.252			
x <sup>2</sup>	7.962(p=.437)				5.216(p=.734)			

〈표 4〉 청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항로지스틱분석 결과(계속)

	모형3				모형4				모형5			
	B	S.E.	p	Exp(B)	B	S.E.	p	Exp(B)	B	S.E.	p	Exp(B)
상수	-5.948	.943	.000	.003	-7.371	.990	.000	.001	-8.671	1.110	.000	.000
성별												
교육수준												
소득												
개인												
자아개념	1.289	.155	.000	3.630	1.078	.160	.000	2.939	.997	.164	.000	2.709
건강	.896	.119	.000	2.450	.765	.122	.000	2.149	.717	.126	.000	2.048
문화												
문화비비율	.010	.024	.656	1.011	.011	.023	.632	1.011	.017	.023	.458	1.017
문화참여	.071	.064	.267	1.074	.062	.066	.350	1.064	.048	.066	.473	1.049
직무												
직무만족					.887	.148	.000	2.427	.834	.152	.000	2.302
사회자본												
대인신뢰									.469	.158	.003	1.598
주변안전									.378	.189	.045	1.460
국가기구신뢰									-.073	.175	.676	.929
-2 Log 우도	892.037				854.329				840.126			
Nagelkerke R <sup>2</sup>	.255				.300				.317			
$\chi^2$	14.877(p=.062)				7.755(p=.458)				5.211(p=.735)			

다음으로 모형4의 경우,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 카이제곱이 7.755( $p=.458$ )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명량은 30%로 확인되었다. 직무만족을 추가 투입한 결과, 성별, 자아개념, 건강 및 직무만족이 행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성이 행복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으며( $B=-.474$ ,  $\exp(B)=.623$ ), 자아개념( $\exp(B)=2.939$ )과 건강( $\exp(B)=2.149$ ) 역시 높은 승산비를 보였다. 이에 못지않게 직무만족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직무에 대해 1단위 만족할수록 행복하다고 응답할 승산비가 2.427배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p(B)=2.427$ ).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변수인 대인신뢰,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를 추가 투입한 모형5의 분석 결과,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 카이제곱이 5.211( $p=.735$ )로 모형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모형 설명량은 31.7%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로는 성별, 자아개념, 건강, 직무만족, 대인신뢰 및 주변안전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추가로 투입한 사회적 자본 변수의 경우 국가기구 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대인신뢰( $B=.469$ ,  $\exp(B)=1.598$ )와 주변안전( $B=.378$ ,  $\exp(B)=1.460$ )은 정적인 관계로 확인되었다. 즉 대부분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1단위 증가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598배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1.460배 행복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청년들을 일컫는 ‘3포 세대’ 혹은 ‘5포 세대’와 같은 낮은 삶의 질을 대변하는 표현이 늘어감에 따라 청년들의 행복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무언가 포기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자조하는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청년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자아개념, 직무만족, 건강, 대인신뢰 및 주변안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개인요인과 직무만족, 사회적 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문화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자본이 개인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결과(서우석, 2015; 이갑숙, 임왕규, 2012; 장명숙, 박경숙, 2012)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은 문화예술 활동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월평균 소비하는 문화활동비와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를 문화자본으로

설정하였다 데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아개념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행복수준은 객관적이고 측정가능한 변인에 의해 도출된다기보다 사건이나 환경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는 개인의 경향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일련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Costa & McCrae, 1980). 따라서 한국 청년들의 행복 역시 청년들 스스로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자아개념 다음으로 직무만족이 청년들의 행복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근무환경, 업무와 관련한 직무만족은 행복감과 관련이 깊으며,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이며, 심리적으로 소진되어 정서적으로 피로하게 되는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행복감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정민정, 김유진, 2009). 이는 실업난이 심각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행복에도 '직무'와 관련한 심리적 변수가 상당히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건강과 행복은 상호관련이 있어 건강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행복은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Miret et al., 2014). 아울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낙관적으로 느낄수록 행복을 더 경험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즉 의사에 의한 객관적인 건강 평정이 아닌 주관적으로 해석된 건강과 행복이 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장휘숙, 2009; Brief et al., 1993; Miret et al., 2014).

다섯째, 사회자본도 청년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부분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와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은 행복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신뢰가 높고 주변이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행복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Kawachi(2006)가 설명한 '응집(cohesion)'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이 행복과 관련이 있음을 피력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Brown et al., 2002; Sandro, 2015; Scheffler et al., 2007).

마지막으로 성별도 행복과 관련이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대개 행복에 대한 성별 효과는 그들이 속한 집단 및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문식, 2012; Gerhard & Woodley, 2015; Wood et al., 1989). 특히 젊은 연령대의 여성이 또래 남성에 비해 행복하다고 밝혀지고 있다(Diener, 1984).

기존의 행복에 관한 연구는 철학적 담론을 담거나 제한된 연구대상을 지녔으나, 본 연구는 전국적인 데이터인 한국교육고용패널을 활용하여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지 못하여 한계가 있으며, 행복여부의 종속변수가 아닌 다차원적인 행복변수를 분석한 추후 연구를 기대해본다.

## ❖ 참고문헌 ❖

- 권세원, 이애현, 송인한(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 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 연구. 23(2). 39~72.
- 김성동(2007). 인간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대동철학, 41, 51~77
-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숙(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 연구원.
- 김민경(2011). 대학생의 '행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0), 1~34.
- 김윤태(2009). 행복지수와 사회학적 접근법: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2009.09), 75~90.
- 류승아, 김경미, 최인철 (2011). 중년기 여가생활이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4), 415~434.
- 서우석(2015). 문화여가활동이 경제적 빈곤층의 행복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 총, 29(1), 266~296.
- 여유진(2015).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 보건복지포럼. 3, 36~43.
- 이갑숙, 이왕규(2012),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권 10호, 291~306.
- 이기혜, 김경근(2013). 중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3), 139~168.
- 이내찬(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5~40.
- 이용철(2012). 루소의 행복론: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행복. 통합인문학연구. 4(1). 1~19.
- 장명숙, 박경숙(201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건사회 연구, 25권 2호, 91~118.
- 장휘숙(2009). 한국 노인의 주관적 건강과 성격특성, 행복 및 죽음태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23~40.
- 정민정, 김유진(2009).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65~74.
- 장인원(2010). 조직문화와 조직구성원의 행복에 대한 연구: 전라북도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세근(2014). 행복의 상대성과 균등성. 철학연구, 104. 1~26.
- 한세희, 김연희, 이희선(2010).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행정 학보, 44(3), 37~59.
- Brief, A. P., Butcher, A. H., George, J. M., & Link, K. El(1993). Inter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46~653.
- Brown, T.T., et al., 2006.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the demand for cigarettes. Health economics, 15 (11), 1159~1172.
- Coalter, F(2001). Realising the Potential: the Case for Cultural Services - The Arts.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Published online at www.lga.gov.uk in late 2001

- Cohen S, Pressman SD.(2006). Positive affect and health. *Curr Dir Psychol Sci.* 15(3):122~5.
- Costa, Paul T. & Robert R. McCrae(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8, No. 4, 668~678.
- Diener, Ed.(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olan P, Lee H, King D, Metcalfe R.(2009). Valuing health directly. *BMJ.* 339: b2577.
- Frey, B. S., & Stutzer A.(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402~435.
- Gerhard, Meisenberg & Michael Woodley(2015). Gender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Gender Equalit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Dec2015, Vol. 16 Issue 6, p1539~1555
- Graham C.(2008). Happiness and health: lessons - and questions - for public policy. *Health Aff (Millwood).* 27(1):72~87.
- Gundelach P. & Kreiner S.(2004).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ross Cultural Research*, 38(4), 359~386.
- Harrington, Jesse R., Pawel Boski & Michele J. Gelfand(2015). Culture and National Well-Being: Should Societies Emphasize Freedom or Constraint? *PLoS ONE* 10(6), 1~14.
- Kawachi, I.(2006). Commentary: social capital and health: making the connections one step at a time.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5(4), 989~993.
- Helliwell J. F. & Putnam R.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London*, 359: 1435~1446.
- Lyubomirsky S, King L, Diener E.(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 Bull.* 131(6): 803~855.
- Michalos, A. C.(1986). Job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A review and a preview. In F. M. Andreww(Ed.),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 Miret Marta, Francisco Felix Caballero, Somnath Chatterji, Beatriz Olaya, Beata Tobiasz-Adamczyk Seppo Koskinen, Matilde Leonardi, Josep Maria Haro & Jose Luis Ayuso-Mateos(2014). Health and happiness: cross-sectional household surveys in Finland, Poland and Spain, *Bull World Health Organ*, 92, 716~725.
- Myers. David G. and Ed. Diener(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 Nolen-Hoeksema, S., & Rstuing, C. L.(1999). Gender differences in well-being, In D. Kahnemann.. E. Diener., & N. Schwarz(Eds.). *Well-being: The foundation of hedonic psychology(330-352).*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avot W. & Diner Ed.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172.
- Sandro Stanzani (2015)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Italy,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25:1, 129~143.
- Scheffler, R.M., Brown, T.T., and Rice, J.K., 2007.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reducing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ortance of controlling for omitted variable bia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5(4), 842~854.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Seligman, M. E. P., Steen, T. A., Park, N., & Peterson, C.(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 American Psychologist, 60. 410~421.

Smith, H. C.(1961). Personality adjustment. New York: McGraw-Hill.

## ❖ Abstract ❖

### The Factors Affecting Young Adult's Happiness in Korea

Seo Bongeon, Kim Kyungsik(Kyungpook Natl' University)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Korean young adult's happiness, using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 used panel data,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key factors affecting Korean young adult's happiness are self-concept, job satisfaction, health, interpersonal generalized trust, local community safety and gender. Positive self-concept is suggested as a strong influence on happiness. Also, happines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job satisfaction and health. Interestingly social capital as interpersonal generalized trust and local community safety has an influence on subjectively perceived happiness. Korean young female has the possibility to be happier than young male.

Taken togeth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strategies to improve various factors be needed for young adult's happiness.

**Key words:** keep, happiness, self-concept, job satisfaction, social capital